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와 음주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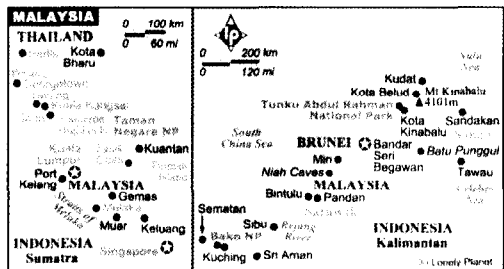
조성기
(KARF 경영기획본부장)

■ 목 차 ■

1. 다양성이 다양한 음주문화를 낳은 말레이시아
2. 유럽인의 침범과 함께 침범해 온 술
3. 말레이시아에는 술 문제가 없다?
4. 인종과 종교의 차이가 낳은 음주패턴의 차이
5. 말레이시아인들은 흑맥주를 좋아한다
6. 모임에서 빠른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말레이시아인
7. 말레이시아 여성음주의 변화와 서구화
8. 열심히 일한 중국인들, 마셔라!
9. 술 권하는 동말레이시아인
10. 독한 증류주를 마시는 인도인 농장노동자들
11. 종교적 이유로 음주를 금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12. 말레이시아인들이 술 마시는 이유
13. 기로에 선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 아직 희망이 있다

1. 다양성이 다양한 음주문화를 낳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특성은 간단히 요약하면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과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마땅히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는 그러한 특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사바(Sabah), 사라와크(Sarawak), 보르네오섬으로 이루어진 동말레이시아와 쿠알라룸푸르와 11개의 주로 구성된 서말레이시아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는 2,200만명 정도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말레이원주민, 중국, 인도인 등 3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사용한다. 종교도 이슬람,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이 들어와 있다. 동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어와 말레이 문화를 가진 큰 부족이 있어 서말레이시아와는 구분이

된다.

이같은 다양성은 생활습관, 영양상태, 의복, 가치, 숭배대상, 신체적 특징 등 삶의 모든 측면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절반이상은 회교도다. 회교도는 소고기는 아주 좋아하지만 돼지고기는 금기다. 1/3이 조금 넘는 수가 중국인들이다. 중국인들은 불교를 가장 숭상하고, 유교, 도교, 기독교 등을 믿는다. 고기를 먹는 데에 전혀 금기가 없고, 돼지고기를 잘 먹는다. 9%정도는 인도인들이다.

인도인들의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지만 일부는 회교도나 기독교도이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양고기는 잘 먹는데 소고기는 절대 금기다. 일부분이지만 힌두교도 중에 채식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잘 먹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먹는 고기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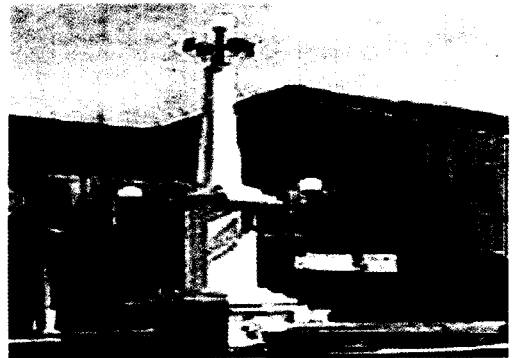
이쯤 되면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와 음주대책은 상당히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인의 침범과 함께 침범해 온 술

믿어지지 않지만 말레이시아 자료에서 음주행위는 유럽인들이 침범해 온 이후에나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인류와 함께 술은 있었다는 말을 말레이시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배 이전에 이슬람교의 강한 금주계율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술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 일부 비회

교도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술을 빚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맥주나 와인, 증류주 등의 술이 말레이시아에 출현한 것은 영국의 식민통치가 출현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인들은 식민사업을 할 때 인도인 노무자들을 이민시켰다. 그 인도인 노무자들은 고무농장과 도로, 철도공사 일을 했는데 코코넛 팜 열매를 발효시켜 '토디(toddy)'라는 알코올 음료를 만들었고, 쌀로 만든 와인인 '삼수(samsu)'를 빚었다.



영국인의 고무농장이 있는 배릭플라우 마을

영국인들의 지배가 시작될 때 지방의 왕족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은 영국인들이 음주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인과 인도인 이민자들이 서말레이시아의 동부 해안에 있는 케란탄(Kelantan)으로 들어 왔을 때 말레이시아인들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말레이시아에서 음주란 이슬람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면서 말레이시아에 걸맞지 않는 문화로 치부하였던 것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치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회교도가 아닌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음주는 일반적인 일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1980년

도에 말레이시아인들이 마신 맥주는 2억병이 나 된다. 이러한 통계치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맥주에 관한한 세계적인 음주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네스, 타이거, 양코르, 칼스버그 등 국제적인 브랜드를 가진 맥주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 맥주들 중 일부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품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에서 이 맥주제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미국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에서는 맥주를 1/4갤론 짜리 병에 담아 팔고 맥주잔이나 머그잔에 담아 마신다.

3. 말레이시아에는 술 문제가 없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음주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음주나 알코올 남용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거나 민간부문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한 경우가 거의 없다. 예방도 치료도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실 마약이 문제이지 음주나 알코올 남용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주류업계에 술 문제를 책임지라는 목소리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레이시아의 알코올 소비량은 마약소비량보다 많다. 그리고 알코올의 소비는 마약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치료센터는 있지만 특화된 알코올 의존증 치료센터는 없다. 1984년에 정부에서 운영한 마약치료센터는 6개 병동, 1200개 병상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마약치

료센터도 20개나 되지만 알코올 의존증은 그 중 2개 센터의 일부시설에서 치료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센터들은 기독교회나 회교도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말레이시아는 마약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법을 가지고 있다. 1983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법마약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였다. 마약소지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알코올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연방법에는 없다. 다만 35도 정도가 되는 독한 술인 '삼수'의 제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한 제약이 있다.

알코올에 대해 정부가 무관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술을 마시고도 대부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술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대부분 개인차원의 문제 정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인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붕괴된다거나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하는 정도 이상의 문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1985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80,526건 중 0.19%인 156건 만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1980년에도 술 취한 행인 때문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합쳐서 0.05% 정도였다. 더욱이 문제 음주자들의 대부분은 인도인들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농장 노동자들이었다. 문제라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라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은 이러한 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인종에 속해있느냐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는가와 밀접한 관계



말레이시아 인도인의 축제

가 있다. 그만큼 행동통제가 잘되고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라고 생각이 된다. 수적으로 많은 말레이종족 사람들은 마약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술 문제는 주로 소수민족인 인도인들의 몫이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소수민족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하층민에 속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알코올 문제는 대체로 경제적 하층민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된다. 그런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알코올 문제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주류사회의 문제가 아닌데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4. 인종과 종교의 차이가 낳는 음주패턴의 차이

말레이시아에서 술의 사회적 패턴과 관련이 깊은 요인들은 인종과 종교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종과 종교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슬람교도들은 술을 금기시한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말레이인종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마시더라도 아주 소량을 마시는 정도이다. 특히 서말레이시아의 동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0%이상이

말레이 인종이면서 이슬람교도들이다. 말레이 인종 중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서구 유학생 출신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혹자는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회교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1970년 이래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늘어나자 음주문제가 공식적 논쟁 꺼리가 되었다. 비판은 대부분 소위 근대적인 이슬람교도들에게 퍼부어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논쟁의 주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음주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허용수준 논쟁과 음주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말레이시아를 서구화된 법적 상태로부터 이슬람의 법인 샤리아(Syariah)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를 희망하였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형태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체계는 음주를 완전히 금하는 것이었다. '케란탄'이 있는 동부해안에서는 이슬람정치가 집권하여 '샤리아 범죄규약'을 도입하였다. 그 때가 1993년이었다.

이 법은 '케란탄'의 모든 회교도들이 술을 절대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술을 마신 자는 엄벌에 처해지도록 되었다. 이법은 또한 회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두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회교도들의 음주는 공공장소에서는 강력히 제약되는 것이었다. 비회교도들은 또한 가정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회교도 손님이 왔을 때에 술대접을 하는 일은 금지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선 말레이시아에 인종도 많고 종교의 종류도 많기 때문이었다고 보면 된다.

이유 중 또 하나는 덜 보수적인 회교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 법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의 회교도들이 상당히 선진적인 사고를 가졌음을 알게 해 주는 일로 생각된다.

5. 말레이시아인들은 흑맥주를 좋아한다

말레이시아의 음주인구가 마시는 술은 주로 맥주와 스타우트이고 그 다음이 증류주이다. 말레이인종이 아닌 종족들은 지역에 술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스타우트라고 보면 된다. 사라와크의 이반족, 카타잔족, 사바의 바자우스 족들 등 소수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스타우트는 말레이시아에서 '노동자의 술'이라고도 한다.

인도인, 중국인 건설노동자, 인도인 고무농장노동자,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의 농부들 등 육체노동자들의 경우 스타우트를 선호한다. 흑맥주인 스타우트는 열대의 태양아래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였다. 노동에 지친 육신을 이완시켜 주는 스타우트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흑맥주는 노동자들에게 건강음료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흑맥주가 영양분과 강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외친다. "기네스 스타우트가 당신에게 건강을 준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의 형태를 더운 것과 찬 것으로 구분된 것으로 생각한다. 스타우트, 맥주, 위스키 등은 차가운 것으로,



게요리와 흑맥주 기네스를 판매하는 음식점

브랜드는 더운 것으로 구분한다. 이 음료들은 각각의 속성에 따라 몸을 덥게 하거나 차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더운 것으로 분류되는 열대과일인 두리안과 함께 마실 때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토디'는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찬 알코올음료이다. 인도인들은 '토디'를 마시면 긴장이 완화되고 잠이 쉽게 든다고 하여 좋아한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차다거나 덥다는 것은 온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면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그들이 차거나 덥다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도록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술을 건강에 연결시키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건강문제에 관해 아직 덜 서구화되었다는 의미일까?

6. 모임에서 매운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말레이시아인

위스키, 스카치, 브랜드 등의 증류주는 가격이 높고 그것들을 마시면 영국의 식민자들과 닮은꼴이 된다는 착각을 말레이시아인들에 준 듯하다. 서구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각테

일 파티에서 처럼 독주를 마시면 멋있고 문명화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래서 브랜디나 위스키는 상류층의 술, 스타우트는 중류층, 토디와 삼수는 하층민의 술이 되었다고들 한다. 그들 중 하층민은 대부분 인도인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이 술과 계층을 조합해서 말하는 것은 분류를 하고자 할 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맥주는 전 계층이 대체로 마시는 술이 되었고, 증류주도 일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인들은 아직 와인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와인은 중국인들의 요리에 사용되고 있고, 와인토닉은 산후 여성과 빈혈증이 있는 여성들이 좋아하고 있다.

또한 가끔 결혼을 기념하는 축제 중에 축하주로 와인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통상 축제에서도 와인의 대용품으로 샴페인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음주는 크리스마스, 중국인의 축제인 구정, 힌두의 빛의 축제날인 디프발리(Deepvalli) 날과 같은 문화와 종교적 행사, 결혼식, 가족의 특별한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녁 퇴근날정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는 것도 또한 직장인들의 일상사가 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혼례, 술 마시는 날

하지만 마시는 양은 대체로 사교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술을 살 때 혼자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 큰 병으로 산다. 서로 교대로 사기도 하고 친구의 잔이 비면 그대로 두지 않고 채워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친구의 잔이 비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친구의 잔을 채우는 일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서로 격려를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술을 마시는 집단이 모였을 때 "무슨 술을 마실 것인가?"는 통상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몇몇이 투표를 하기도 한다. 대체로 여러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두세 가지 브랜디의 술이 선택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알코올에 고율의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술값은 상당한 수준이다.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들의 월급 봉투는 상당히 가벼워져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맥주나 독한 증류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실 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술꾼 들은 길가 노점이나 음식점에서 볶은 국수(Meegoreng)나 홍합이나 양파와 함께 튀기거나 삶은 매운 해물을 안주로 술을 마신다.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닭고기나 양고기를 매우 맵게 조리하여 안주로 삼는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알코올음료가 매운 양고기와 치킨 카레와 같은 음식에 맛을 더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이 알코올의 흡수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알코올이 단백질과 지방의 흡수를 늦추는 것이지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들 믿고 있다. 그래서들 술을 더 마신다고 볼 수 있다.

입이 타는 듯한 아주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시원하게 냉장된 맥주를 함께 마시거나 술을 평소보다 더 마신다. 그러다 보면 폭음을 하게 되기도 한다.

중국인들, 인도인들,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들, 말레이인종들 중 일부는 퇴근길에 혼자 술을 마시러 바에 들른다. 집에서 술을 마신다음에 혼자 술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경우 상당수가 알코올 의존증을 경험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에도 알코올 의존자들이 일부 발견되는 것은 예외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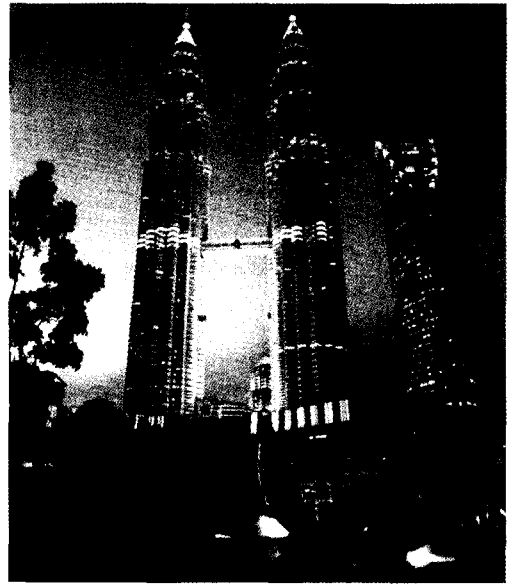
7. 말레이시아 여성음주의 변화와 서구화

말레이시아에서는 술 마시는 사람들이 통상 남성이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적다. 마시더라도 나이든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편이다. 아직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이 술을 마시면 여성답지 못하다거나 덕이 부족하다는 평이 내려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인도인 고무노동자들에 대해 1985년도에 조사된 2개의 자료를 살펴보면 각각 16%, 5%의 여성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인도인들에 대한 자료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중에서도 매일 마시는 사람은 없고 주 1회 정도 마시거나 가끔 마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음주가 늘어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점점 서구

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손에 술병을 들고 음악에 맞추어 디스코 춤을 추는 것을 배우고 있다. 30대 이하의 여성들은 음주에 대해 허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전 세대의 여성들이 술을 문화적 금기로 여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알코올의존자도 다른 나라의 의존자들과 아주 똑같은 양상은 보인다고 한다. 초기에는 우선 술을 많이 마신다. 계속 술을 마시면 친구를 잃고, 가족의 지지도 사라지고, 실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곧 자신이 불쌍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도 불명예에 쌓이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병원의 가족이 상담할 때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의존자 가족들에게서 명예는 사라진다.

말레이시아인들의 음주는 가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의 음주가 다른

나라들 보다 많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나머지도 통상 음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화되어갈수록 음주를 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도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을 점점 더 볼 수가 있다. 종교적 규범 이외에서 서구화가 말레이시아인들을 술 마시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열심히 일한 중국인들, 마셔라!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은 일반적인 맥주와 스타우트 이외에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칭타오 맥주를 마신다. 결혼식이나 구정 때에는 브랜드를 잘 마신다. 결혼식에서 중국인들이 술을 마시면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술집처럼 변한다. 중국인들은 술을 마실 때 요란한 건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을 쳐들고 "얌"하고 소리치면서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까지 소리치다가 "쌩"하고는 마신다.

얌생(Yaam Seng)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의 건배에 해당하는 그들의 용어다. 중국인들은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혼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건배를 하는 의례를 한다. 신랑과 신부가 테이블마다 옮겨가며 건배를 하는데 각 테이블의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서서 술잔을 들고 최선을 다해 "얌생"이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가능하면 "얌"을 길게 하려고 애쓴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중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화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립심이 강하고, 성취지향적이고, 기회를 잘 찾아내고, 욕심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열심히 일한 중국인들 마셔라!"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로 과음하며 즐기는

자리가 자주 발견된다. 그렇게 마셔대는 중국인들에게 이상하지만 알코올 의존자는 드물다.

그런데 흥조증을 가진 중국인들은 주석에서 동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 중국인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요리에도 많이 사용한다. 주로 요리용 와인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삶에서 알코올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다만 즐길 뿐이라고 보면 옳을 듯 하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중국인들이 단일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내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들이 이주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음주문화에 관한한 미미한 차이 이외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광둥사람들은 거칠고, 목소리도 크고 노골적이다. 이런 차이가 음주패턴에도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9. 술 권하는 동말레이시아인

동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맥주와 스타우트를 주로 마신다. 이러한 경향은 사라와크의 이반(Ibans), 가다잔(Kadazans), 사바의 바자우스(Bajaus) 등의 사람들과 유사하다. 동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두악'(Duak)이라고 부르는 쌀로 만든 술을 마신다. 사와크에서는 '두악'이라고 부르지만 사바에서는 '타페이'라고 부른다. 쌀 술은 추수감사절이나 사회적 모임 등에서 주로 마신다. 특히 동말레이시아의 추수감사절에서 술은 중요한 구실을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날은 술을 마신다.

동말레이시아에서 '두악' 또는 '타페이'를 권할 때 마시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분위기를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 아시아사회에서 술 권하는 문화는 아마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말레이시아인들을 보면 “술 권하는 행위를 권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정도다. 이미 “술 권하기”가 하나의 종족문화로 자리 잡았으니 말이다.

10. 독한 증류주를 마시는 인도인 농장노동자들

말레이시아로 이민 온 인도인들의 음주는 특별한 경우가 많아 이민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도인들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일 민족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에 인도인들이 처음 발을 내딛은 때가 1800년대와 1900년 초로 영국인들이 고무농장을 확장하는 일에 투입하고자 결정한 시기였다. 초기이민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무원, 교사, 기업가, 상인 등이 들어왔고 그들은 도시에 살았다. 노동자의 유입이 끊어진 후에도 도시거주 인도인들의 유입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인도인들의 음주습관은 농장노동자와 도시이민들이 각각 달랐다. 노동자의 80%는 타밀

인들이었다 그들은 힌두교를 믿었고 대부분 남인도에서 왔다. 도시이민들은 말레야리스인, 텔구스인, 편잡인, 구자라트인, 싱할리인, 스리랑카에 사는 타밀인 들로 구성되었다. 노동이민자들은 비천한 것으로 여겨졌고, 술을 잘 마셨으며, 하층민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도시이민들은 중산층으로 편성되었다.

중산층 인도인들의 음주습관은 다른 집단 보다 1인당 소비량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 만취현상, 가정생활 붕괴, 주부의 알코올 남용 등 문제음주가 많았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문제음주와 만취하는 현상은 대부분이 고무농장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사람들은 인도인 노동자에 대해 좋지 않았고 본래 만취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입소문이 돌았다. 인도인들의 음주패턴, 상대적으로 잦은 음주빈도를 자랑하는 인도인들에 대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과음 잘하고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낙인을 찍고 있다.

유입된 인도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총각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금의환향하는

〈표 1〉 음주인구의 1인당 술소비량(1996~1997)

구 분	주 간			연 간			
	맥주(병)	와인(글라스)	증류주(글라스)	맥주(병)	와인(글라스)	증류주(글라스)	합계(리터)
Centre	2.0	0.0	0.0	1.1	0.0	0.0	1.1
H.Estate	2.8	1.5	2.5	1.5	1.5	2.3	5.0
Kampung	3.5	1.5	2.0	1.9	1.9	1.8	4.9
Estate	5.5	2.0	10.5	2.0	3.0	3.0	1.6
Chinese	2.7	1.5	2.4	1.5	1.5	2.2	4.9
Indians	3.8	1.7	10.5	2.1	2.1	9.6	13.0
All	3.0	1.6	4.7	1.6	1.6	4.3	7.1

것이였다. 인도청년들은 카스트 제도 하에서 가족이나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사실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은 장외 경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 가족이 없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는 것은 가족의 문화적 지지를 버리고 뿌리를 옮기는 일이다.

영국인들이 소유하는 고무농장의 노동은 노예노동과 흡사 다름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아주 노동강도가 강하고 혹독했다고 한다. 또한 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흥꺼리도 문화적 시설도 없었다. 더욱이 농장경영자들은 인도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가장 쉬운 도구가 알코올 이라고 생각하였다. 술을 가져다 팔면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였다. 그래서 농장노동자들은 술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농장의 상점마다 알코올이 있었다고 한다. 농장마다 알코올 증류기가 있었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삼수'(samsu) 술 제조기업도 생겨났다. 삼수 술은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고 저저분한 장소에서 팔았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싼 독해 금방 취했다. 농장노동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삼수 1글라스는 10 말레이시아 센트, 미화로 0.04달러였다. 인도인들의 생활 속에 알코올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삼수의 제조는 법으로 금지하였지만 단속이 빈번치 않았고 제조비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시장에서 계속 팔렸다. 1979년 자료를 보면 서말레이시아에서 57,197명이 삼수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삼수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 속출하였다고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삼수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야기로 가득 채운 적도 있었다.

최근 삼수의 소비가 줄고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라기보다는 인도인 노동자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1985년 조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무농장 남성 노동자는 68%가, 팜유농장 노동자는 44%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자 중 47%는 '토디'를, '맥주'는 29%, '삼수'는 6%가 마시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구매습성을 조사한 자료에는 봉급을 받는 월초에는 증류주를, 돈이 조금 줄어든 월중에는 맥주를, 월말에는 '토디'나 '삼수'를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노동자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술 마시는데 써버렸다고 한다. 외상술을 마셔서 빚더미에 오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11. 종교적 이유로 음주를 금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도 등이 대표적인 말레이시아의 종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독교, 카톨릭교도 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알코올을 마시는 일에 엄격하다. 그 중 이슬람이 가장 강하게 금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종교들은 강하게 금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한 적당한 음주를 설파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종족과 종교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술에 관해 종족간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종교 간의 토론을 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는 말레이시아에서 술을 종교의 일부분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그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전반에 음주를 억제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일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카톨릭과 여타 기독교 종단에서 의례 시 와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 신앙이 서구적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도 되었지만 서구적 음주 행위를 전파하는 종교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해석은 말레이시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술을 의례에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만이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12. 말레이시아인들이 술 마시는 이유

말레이시아인들이 술 마시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많다. 심한 노동의 피로를 풀기위해서나 잠을 잘 자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것이 그것을 시사한다. 특히 '스트우트'와 '토디'를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그러한 대답이 많다고 한다. 그 다음이 소화를 돕거나 몸의 열을 줄이기 위해서이니 사실 건전한 이유로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축제에서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농장노동자인 인도인들의 경우는 집에서 마시거나 혼자 많이 마시기 때문에 주흥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인도인들은 18%만이 술마실 때 친구를 찾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노동자들이나 빈곤층에게는 알코올이 피로한 노동으로부터 일시적인 도피처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음주집단 내에서는 동료들의 강력한 음주강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인들의 정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음주강요다. 술자리를 마련한 호스트들은 술을 자꾸만 따라주고 음주를 강요한다. 건강을 기원하고, 술을 따르고, 빈 잔을 또 채우고, 주인은 다시 옆자리의 잔에 술을 따르고 모두 함께 축원하는 잔이 거듭된다. 호스트는 통상 "아니(No)!"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축하연의 자리는 공공연하게 술 마시는 자리가 된다. 혼례나 종교적 의례에서 술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호스트는 술을 항상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런 특별한 날에 말레이시아인들도 만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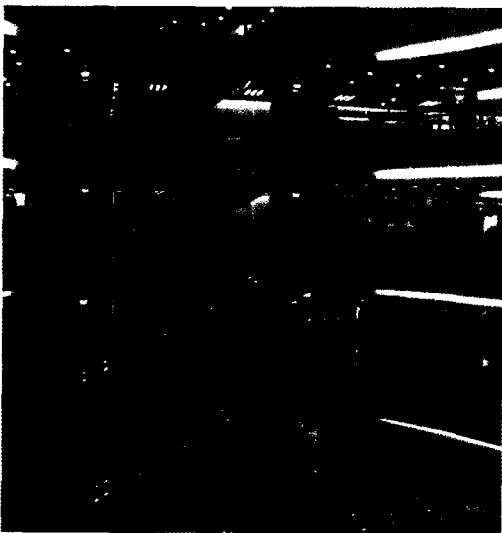
13. 기로에 선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 아직 희망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는 일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종족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문화현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술 마시는 일에 관한 한 말레이시아인들은 프랑스인들이나 이탈리아인들과는 아주 다르다. 물론 폭음이나 과음에 까지 대단히 허용적인 우리나라와도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처럼 술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중국인들이 음식을 만들 때 와인을 소량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음식의 일부분이라고도 보는 경우가 없다. 서구종교 중 기독교에서나 종교적인 의례에서 알코올을 사용할 뿐 다른 종교는 술과 대체로 거리가 멀다. 결혼식 축하연에서 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당

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인지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민속학이나 문학, 드라마에서도 술을 통상 기피해야 할 물질로 묘사되고 있다. 전통문화 속의 알코올은 동말레이시아의 경우애나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술이란 서구적 생활습관과 관련될 뿐,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영역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예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형 서구형 쇼핑몰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서구의 음주행태와 동화되는가?" 아니면, "이슬람의 금주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싸고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화의 진전과 함께 음주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를 고려해 볼 때 그 중 어느 하나로 쉽게 결정될 것 같지

는 않다. 대세를 막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음주전문가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금주를 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말레이시아인들은 법적으로 음금을 해서 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경우는 "술을 마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그렇게 선택해서거나 종교적인 규범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를 고찰해 볼 때 말레이시아인들의 종교의 힘은 아직까지 믿을만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는 중동지방 보다 말레이시아에서 더 강력히 부리박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니 말이다. 다만 개인적 선택이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한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현대 말레이시아와 소득의 성장, 여성의 사회화, 청소년의 서구가치화 등의 물결 속에 과연 말레이시아인이 알코올 대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확한 미래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가장 일반적으로 즐기는 음주는 '사회적 음주'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의 음주문화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정부도 민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곳, 지구상 국가 중 흔치않은 사례인 것이 분명하다.

唐詩감상 / 孟浩然的 詩

孟浩然에게 (贈孟浩然)

나는 孟夫子를 좋아하나니
그의 風流는 天下에 다 들린다.
젊어서부터 벼슬 버리고
이제 늙어서 松雲 속에 누우려나.

달에 취하여 자주 술을 마시고
꽃에 미혹해 임금을 안 섬겼다.
그 높은 山을 어찌 우러릴 수 있는가.
맑은 그 향기에 한갓 질할 뿐이다.

我愛孟夫子 風流天下聞 紅顏棄幹冕 子首臥松雲
醉月頻中聖 迷花不事君 高山安可仰 徒此揖青芬

[해설] 이 시는 孟浩然이 終南山으로 돌아갈 때 李白이 배웅나가 지어 준 것이다. 6구는 무두가 孟浩然이 풍취를 묘사한 시로서, 더구나 끝의 두 구는 그를 사모하는 정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